



■ 완니 전도사 성적우수상 시상식

샬롬~

노원성진교회 최지훈 담임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하며 저희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호와의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완니 전도사는 지금 캄보디아장로교 신학대학 신대원(M.div) 2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 성적이 나왔는데 1등을 했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완니의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온 저희 부부는 완니와 그의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더 감동이 되었습니다.

완니가 고등학교 시기에 제대로 못배워서 신학교를 입학하고 처음 몇 년간은 늘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종 무슨 일로 백선교사에게 야단을 맞을 때도 잘 감내하고 따라와주었고 제자훈련도 성실히 임해왔습니다.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경건과 학문을 연마하며 은혜도 받고 말씀암송 100구절도 하고 이제는 300구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참 감사한 선물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해오면서 기운 빠지고 무슨 큰 희망이 없던 차에 완니로 인해 위로가 되고, 무엇보다 사역이 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다져진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가 생겨 공부도 잘하게 되고 인생이 바뀔 수 밖에 없는 '생각의 틀'이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팔자가 바뀝니다. 할렐루야!



■ 완니 전도사와 예수교회 월말시상식자

【시은교회 원로목사님과 성도님들 방문】

끔뽕스쁘 반석교회당 건축에 큰 힘을 실어주신 시은교회를 대표해서 최철용 원로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다녀갔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웠던 시기에 기적 같은 헌금을 보내주시고, 교회당이 완공되기까지 기도로 함께 해주셨던 분들과 뒤늦게나마 헌당예배를 드리며 그 때의 감동과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저희를 물심양면으로 함께 해주시는 프놈펜 선린교회 이유진 담임목사님이 축사를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 시은교회, 반석교회헌당예배 및 선교지 탐방

【호산나교회 고등부 단기선교】

짧지 않은 저희 선교사역 세월동안 처음으로 청소년 단기선교팀이 저희 마을에 왔습니다. 마을전도, 전도집회, 미니올림픽, 성경학교 등 짧은 기간이지만 다양한 활동으로 저희 마을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상황이라 쉽게 잊혀질 수 있겠다 싶지만 받은 은혜와 선교지 경험이 생활 속에서 새록새록 되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빈둥지 증후군】

유선교사와 막내 세린이가 평소 보이스트록으로 자주 대화를 합니다. 어느날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누다가 세린이가 "엄마 우울증이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백선교사는 자녀들이 다들 각자의 길로 떠나면서 처음엔 좀 심란했지만, 오히려 사역에 집중할 수 있어서 발동이 걸렸는데, 유선교사는 '빈둥지 증후군'에 걸린 것 같습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 시은교회, 프놈펜-앙코르왓 문화탐방

【첫째 혜윤이가 결혼을 합니다】

그동안 부모를 떠나 대구에서 대학생활을 하던 혜윤이가 교회오빠를 만나서 5월 달에 결혼을 합니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이방인,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이제 비로소 정착을 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된다 싶어서 부모로서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혜윤이가 믿음 안에서 남편과 함께 건강한 가정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2025년 2월 27일



▣ 호산나교회 고등부 단기선교팀

♥기도제목♥

- 1.백정은 유효연 선교사 사역과 껌뽕스쁘 반석교회, 예수교회를 위해 관심과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하는 동역자들이 더해지도록.
- 2.완니전도사가 훌륭한 목회자로 잘 세워져 가도록.
- 3.혜윤이의 결혼을 앞두고 엄마 아빠로서 옆에서 챙겨주지 못하고 있는데, 잘 준비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 4.아들 재윤이가 군생활을 잘하고, 막내 세린이가 런던 유학생활동을 은혜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 호산나교회, 껌뽕스쁘 예수교회 방문



▣ 배식봉사하는 선생님들



▣ 길거리전도를 시작하며



▣ 교육위원장 장로님, 부장선생님 부침개 봉사



▣ 길거리전도



▣ 무언극



▣ 앙코르왓 문화탐방